

포장 중요성 알리는데 동참할 터

김영순 / 한국포장기계협회 부회장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제 78회 기술사 합격자 6백46명 가운데, 포장기술사는 9명, 이 중 김영순 한국포장기계협회 김영순 부회장이 최고령 합격자로 전해져 화제다.

“합격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마음속 오랜 바람인 포장기술 분야의 최고인 포장기술사 자격시험에 합격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선배 기술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합니다.”

김영순 부회장은 현재 한국포장기계협회에서 110여개 포장기계 제조 회사와 관련된 전반 업무를 관장하며 협회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다. 그는 포장산업의 규모에 비하여 포장에 대한 사회의 인식부족과 포장기술 인력의 절대 부족을 느끼던 중 포장기술사회 김청 前회장과 선배 포장기술사들의 권유로 기술사 시험에 응하게 됐다.

“주변의 권유만큼이나 제 능력의 한계에 도전 해 보고 싶은 욕망이 한데 어우러져 응시하게 된 것 같다”는 김 부회장은 전공인 기계 분야는 광범위한 포장 전 분야에 비할 때 일부에 지나지 않아 매우 어려웠다고 토로한다.



“공부할 시간이 충분했다라면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힌 그는 포장기술사 자격시험 문제가 앞으로는 일부에 치우침 없이 전 분야에서 고르게 출제되기를 바라고 있다.

포장기술사로 재탄생한 김영순

부회장은 포장이 폐기물의 발생원이 아니라는 점을 널리 알리는 등 포장의 진가를 피력하는데 동참할 계획이다.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과 적정포장을 통하여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물류비 절감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포장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습니다.”

김영순 부회장은 모든 포장관련 단체가 함께 힘을 합하여 포장의 진가를 일반 소비자에게 알리고 포장의 현실과 앞날을 함께 연구하고 걱정하는 연합된 단체가 탄생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포장기술사의 일원이 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는 김영순 포장기술사. 그는 포장기술인 모두가 함께 단합되어 포장인의 힘을 크게 발휘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내 포장기술 발전 도모할터

이유석 / KP 대표

제78회 포장기술사 시험에 합격한 KP 이유석 대표는 “실력에 비해 과분한 자격을 갖게 되어 너무 기쁘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유석 사장은 현재 포장표준화 관련 컨설팅 전문 회사인 KP의 대표로서 군수품 포장표준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첫 직장인 한국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현 한국디자인진흥원) 포장개발부에 입사하면서 포장업계와 인연을 맺게 된 이 사장은 “포장기술 분야에 10년 넘게 종사하면서 다양한 포장기술 분야를 접할 수는 있었지만 지식의 강도가 너무 얇고 보잘 것 없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다”며 “금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개인 컨설팅 사업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포장기술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번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현장에 근무한 경험이 적어 모든 지식을 책을 통해서만 습득해야만 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꼽았다.

포장기술 분야가 워낙 방대하고 연관된 학



문도 많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이 사장은 “포장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포장분야의 모든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연관된 기술을 어떻게 잘 coordinate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포장기술사 일원이 된 이 사장은 “포장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국내 포장기술 분야에 작은 힘이라도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사장은 “포장이란 것이 제품이 개발된 이후에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한 기능이 크기 때문에 항상 주변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앞으로 고기능성 포장재를 먼저 개발하여 이러한 포장재로 포장이 가능한 제품을 역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포장업계가 담당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덧붙여 “포장분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이 힘을 모아 국가적으로 포장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장기술사 일원으로서 포장업계 발전에 일조하겠다는 그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

지식형 포장산업 육성 피력

김상섭 / FLAIR 이사

“국내 포장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78회 포장기술사에 합격한 플레이어 김상섭 이사는 해태제과 포장개발부서에 입사하면서 본격적으로 포장업무를 했으며 FLAIR사 개발이사로 근무 중이다. 현재 연포장재의 인쇄, 합지, 가공을 하여 미주지역에 수출하는 연포장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포장재의 개발 즉, 샘플 분석을 통한 재질사양의 결정, 원료 RESIN의 선택 및 필름의 개발 및 협력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각종 레진의 물성, 코팅 및 접착기술의 원리, 복합화 방안 및 공압출 필름의 개발, 기타 가공기술 등 연포장과 읍셋 기술의 접목, 플라스틱 용기와의 접착 등 연관성이 높은 분야의 관심이 도움이 되었으며, 월간 포장계, 월간 포장과 포장산업에서 발간된 각종자료와 선배님들의 가르침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 이사는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과거 종합식품회사 포장부서에 근무하면서 포장전반



에 걸쳐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한 분야에 집중하다 보니 다른 분야에의 신기술 습득이 미진했던 부분의 보충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상섭 이사는 각 분야별로 소속된 업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좀 더 많은 문제를 출제하고, 자기 분야의 문제를 선택하여 기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진행하면서 내용의 깊이를 채점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김 이사는 “각자 전문 분야에서 기술의 확보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의 확보, 경험을 통한 노하우의 정립, 후진양성을 위한 기술력 이전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말하면서 “포장 소재 및 기법의 개발, 가공기술의 개선 및 연구를 통한 국내 포장산업에의 접목과 수출량의 증대를 저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여기고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포장기술인의 양성과 신기술의 개발을 통한 지식형 포장산업의 육성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김상섭 포장기술사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

새로운 기술개발에 끊임없이 도전

김 남 수 / 애경산업(주) 포장개발팀 팀장

“그동안 가슴 설레이며 기다려 왔던 포장기술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많은 격려와 큰 도움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 제78회 포장기술사 시험에 합격한 애경산업(주) 포장개발팀 김남수 팀장은 생활용품의 소비자포장을 포장설계 단계부터 개발,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상품포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포장인이라면 누구나 도전하고 싶은 포장기술사 시험을 김 팀장은 수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김 팀장은 “이제야 비로서 포장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번 포장기술사 자격시험을 통해서 처음 포장에 입문하는 마음으로 좀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말했다.

이번 포장기술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김 팀장은 “포장의 분야가 포장소재, 기계, 기법, 물류, 환경, 법규 등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기술과 정보를 필요로 하는 만큼 포장 전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더 배워 할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포장산업의 기술과 이론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공유 되었다는 것. 앞으로 김 팀장은 포장기술사로써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작은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개발에 끊임 없이 도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

김 팀장은 “최근에는 소비자의 시선을 쉽게 끌고 편리하게 다가설 수 있는 포장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요구되고 있지만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포장의 새로운 기술 및 아이디어는 아직도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많은 포장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배출되어야만 사회에서 바라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미래의 포장산업은 포장의 기본적인 역할 수행과 더불어 포장 자체가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창의적인 기술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김남수 팀장.

포장기술사로서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통해 포장산업 발전에 한 획을 그을 그의 활약이 기대된다. ☐

지속적 연구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 주력

김진석 / 유니레버코리아 중앙연구소 포장개발팀 차장

제78회 포장기술사 자격시험에서 유니레버 코리아 중앙연구소 포장개발팀 김진석 차장이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포장기술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포장에 관련한 지식을 한층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험을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을 배려해준 저의 가족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유니레버코리아 중앙연구소에서 생활용품과 식품포장재를 개발 적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석 차장은 현업에서 업무를 하면서 광범위하고 분야별로 많은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포장분야를 깊이있게 공부해 보고자 기술사 시험에 응시하게 됐다.

“많은 분야의 제품들을 신제품에 적용하고, 개발하는 과정 중에서 항상 기술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계기로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석 차장은 연포장을 전공하는 사람이 지류 포장이나 포장의 진동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공부하기란 쉽지 않은게 사실이라고



밝힌다.

“포장의 분야가 넓고 광범위하여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막막했다”는 그는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포장산업 전반의 기술적 부분을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한다. 결과적으로 그는 많은 포장의 새로운 분야에 대하여 접할 수 있었고, 이러한 새로운 기회가 저에게는 기쁨이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기술사 자격시험 가운데, 포장기술사는 포장산업 전반의 규모에 비하여 전문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

김진석 차장은 국내 포장산업의 전문 기술 인력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양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포장기술사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겠다고 전하는 김진석 차장은 앞으로 협력사와 기술 개발과 연구 등을 통하여 보다 경쟁력 제품 등을 만드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

포장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할터

윤 용 우 / (주)이생 플라스틱영업2팀 차장

(주)이생 플라스틱영업2팀에서 영업을 맡고 있는 윤용우 차장은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회사 및 동료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포장기술사 자격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차장은 경험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성형 및 연포장 영업을 하면서, 전문적인 기술영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제78회 포장기술사 시험에 응시하게 됐다.

현장에서 몸소 체험한 경험을 통해 체계적인 전문지식을 쌓고자 했던 윤 차장은 “포장분야가 너무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그 동안 접하지 못했던 지기, 캔, 물류 등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포장산업은 제품의 마지막 단계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아직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하는 점이 아쉽다”는 윤 차장은 “향후 포장 산업은 많은 진보를 통해 더욱 발전을 거듭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발로 뛰며 현장에서 근무해 온 윤 차장은 “많은 식품 업체 유저들을 접하다 보면 포



장의 개념도 아직 모르는 업체가 더러 있다”며 “포장업계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다”고 자 열심히 뛰어 포장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포장의 중요성을 일반인들에게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관련단체들의 노력도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윤 차장은 “관련 단체들이 국내 포장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협회 및 정부차원의 교육과 세미나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포장산업은 선진 포장국가의 포장 개발 및 시스템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윤용우 차장은 “국내 포장은 일본 및 유럽의 포장들을 많이 닮아가고 있는 점이 아쉽다”며 “국내에서도 독자적인 디자인 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포장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윤 차장의 행보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거시적인목을 통해 포장개발연구

임 정 훈 / 롯데중앙연구소 포장연구팀 차장

롯데중앙연구소 포장연구팀 임정훈 차장은 이번 제78회 포장기술사 합격과 관련 “기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포장기술사로서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부담도 느끼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포장기술사 시험준비가 미흡하여 다음 기회로 미루려고 했다는 임 차장은 “포장관련에 종사하시는 주위분들의 격려, 지도와 도움이 이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임 차장은 현재 롯데중앙연구소에서 자사 식품계열사 포장개발, 신소재적용, 품질개선 및 원가개선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식품공학과 대학원에서 화학을 공부한 임 차장은 롯데중앙연구소 입사시 포장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 어느덧 올해로 17년째 포장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포장관련 업무를 시작하면서 포장 전문가가 되어야겠다는 각오를 가졌던 임 차장은 “최근 포장산업은 포장이 다양화되어 기능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며 “경험에



의한 개발에 한계가 있고 새로운 지식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어 포장기술사 자격시험에 응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 차장은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요즘 국내 시장상황이 어려워 식품계열사에서 포장관련 요구사항이 예전에 비하여 많아졌다”

며 “현 업무와 병행하여 시험준비를 하다보니 스트레스와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고 토로했다.

임 차장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포장개발업무는 보람차고 재미있는 분야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앞으로 임 차장은 각사 이익창출, 신제품 개발 등 현업에만 매달리지 않고 연구소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모자란 부분은 산학 협동 연구를 통해 차세대 디자인개발에 의한 제품적용과 제품특성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연구 등에 매진할 계획이다.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듯 포장개발에 열정을 바치고 있는 그의 또 다른 도전을 기대해 본다. ☞

포장개발 및 구매업무 통합 개발 과정 기준 마련

주 준 호 / 옥시 조달부 차장

한국산업공단이 주최하는 국가 고시인 포장기술사 자격시험의 제78회 합격자 발표가 지난 달 5에 있었다.

이번 제78회 포장기술사에는 총 9명의 포장기술사가 합격, 역대 가장 많은 수의 합격자가 나와, 국내 포장기술사 자격 취득자는 63명으로 늘어났다.

금번 포장기술사로 탄생한 옥시 주준호 차장은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준호 차장은 옥시에서 수입통관업무, 포장재 구매업무, Demand planing 업무를 거쳐 현재는 포장개발업무를 하고 있다.

우연히 한국표준협회 교육에 참가했던 그는 자원순환포장기술원 남병화 사무국장으로 부터 ‘포장기술사’ 자격시험을 소개받게 된다.

현재 기술사 자격시험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합격의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포장기술사 역시 포장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높은 전문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시험문제나 평가방식이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

각종 포장관련 서적을 읽고 공부하며 포장기술사 시험을 준비한 주 차장은 문제의 출제범위가 매우 넓고 난이도가 높아서 예상문제를 선정하고 준비하는데 적잖은 고생을 했다고 토로했다.

주준호 차장은 포장기술사의 저변 확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좀더 많은 포장인들에게 시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좀더 많은 포장관련 고품질 교육과정이 포장단체 및 정부차원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포장개발과 구매업무를 통합하는 업무를 통해 모범적인 개발과정기준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주 차장.

이제 그는 국가공인 기술자격인 포장기술사 자격 인증자로 구성된 (사)한국포장기술사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주준호 포장기술사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

선배들과의 지식공유 통해 포장산업 이끌고파

정 태 흥 / CJ(주) 포장개발팀 과장

“지금까지 포장 분야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열정을 보여주신 선배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선배님들의 관심과 지도가 있었기에 개인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질수 있었습니다.”

제78회 포장기술사 시험에 합격한 CJ(주) 포장개발팀 정태흥 과장은 “합격이라는 기쁨과 더불어 기술사라는 책임감, 그리고 실력향상을 위해서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식품분야의 포장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 과장은 현재는 콜드체인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신선제품, 건강보조식품과 관련한 건강식품, 사료 및 바이오분야의 포장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포장기술 분야를 폭 넓게 이해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이번 시험에 응시하게 된 정 과장은 “산업 전반에 관련되어 있는 포장의 분야가 넓어서 모든 것을 정확하고 깊게 알고 이해한다는 것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포장은 새로운 기술이 형성되어 접목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는 분



야에 따라 발생할 기술을 다루기 때문에 폭 넓고 복합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학습해야 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 정 과장은 “기존에 포장의 기능은 제품을 위해 보호 및 유통 측면에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는 포장

의 차별화 기술이 제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대가 왔다”며 “포장을 차별화 할 수 있는 기술은 유니버설 패키징, 편리, 환경친화성, 나노, 선도유지 기술 등이 포장에 숨어 있어야 되고 이 기술이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특히 기존에는 포장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포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편리성을 부여하고, 제조자에게는 부가가치 산업으로 연계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김치, 콩나물, 샐러드, 두부 등의 분야에서 포장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의 ‘지식산업이 미래경제를 지배한다’는 명언을 강조하며 선배들과 지식을 공유하며 포장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정 과장. 포장산업 발전을 위한 정태흥 과장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K]